

AI·에너지 대전환... '호남권 메가시티' 구심점 선다



전남개발공사는 올해 AI와 에너지 수도, 전남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공기업의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통합특별법 발의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지역 개발의 주체로 '호남권 메가시티'라는 경제 지도를 그려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게 개발공사 방침이다. 공사는 행정통합 추진 시기에 맞춰 업무 체계와 조직 문화를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한편, 전남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고 통합 거버넌스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개발공사는 이같은 경영 목표에 따라 ▲초광역권 지역균형 발전 ▲AI·에너지 대전환 ▲지방소멸극복 주거안전망 확대 ▲공공이 앞장서는 도민체감 행복공동체 실현을 위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통합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22개 시·군 맞춤형 개발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초광역권 지역균형발전, 전남 미래 연결-개발공사는 행정통합에 따라 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한 '단일 생활권'이 형성되는 점에 주목, 거점형 도시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I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정주환경과 일자리를 연계해 광주와 전남을 1시간 이내로 연결, 전남의 거점 중소도시들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전략이다.

광주의 문화·교육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전남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특화된 일터를 동시에 갖춘 '자족형 초광역 명품 도시' 구상으로 담양 보춘지구와 광주근교 주거수요에 대응할 'एको시티형 정주도시'로 조성하고 화순 삼천지구를 바이오키워드산업의 배후주거단지 조성하는 도시개발과 광양 덕례지구를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정주융합형 미래산업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산단 개발도 통합경제권의 심장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는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123만 9000㎡)의 경우 인공태양 연구시설 등 첨단 연구·실증 시설과 광주의 연구 인재들이 광주-나주 광역철도망을 통해 출퇴근하는 직주근접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153만㎡)은 광주의 정밀 광학·센서 부품 산업과 연계한 '초광역 우주항공 벨트'로 전남·광주특별시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반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초광역 균형발전·주거안전망 확대
'자족형 초광역 명품 도시' 구축 앞장
22개 시·군 맞춤형 성장 로드맵 제시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추진도
통합 광역 전략망 확보 위해 최선
맞춤형 주거복지로 지방소멸 극복 노력

특히 광주의 AI 기술과 결합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첨단 제조 기지로서 RE100 첨단 산단을 조성, 반도체,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의 핵심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전략이다.

또 지역 여건과 산업 수요 반영한 지역맞춤형 특화산단으로 ▲무안K푸드 산단 ▲한전공대클러스터 ▲울촌2산단 조성에도 나서 지역 특색을 살린 성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AI·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전남 산업 지형 변화 = 개발공사는 행정통합으로 에너지 분야가 즉각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원화된 에너지 공급 체계가 통합으로 '에너지 대동맥'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되면서 전남의 자원이 광주의 산업을 돌리고 그 수익이 다시 전남과 광주 복지로 돌아오는 선순환 체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공사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에너지분부를 신설, 기획·사업·운영 등 전문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꾸리고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에 적극적이다. 이미 상업 운영을 시작한 영광 약수 해상풍력 외에 완도(400MW), 신안(323MW)에서도 공공주도 발전 사업을 추진중이다. 여수·고흥 등 동부권에서도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최초로 무안·영광 에너지저장장치(160MW) 시장에도 출자 형태로 진출하는 한편, '제 2차 ESS중앙계약시장' 입찰에 참여하는 등 통합 광역 전략망을 확보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거 안전망 확대로 지방소멸 극복-전남만의 특화 사업으로 알려진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전남개발공사의 핵심 주거 안전망 사업으로, '지방소멸'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정책으로 꼽힌다. 개발공사는 전남·광주 통합으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지역 청년들에게 전남으로의 이주, 정착하는 기회를 넓혀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진도(60세대)는 오는 11월, 고흥은 내년 3월 준공



전남개발공사는 전남의 미래 100년의 기틀을 쌓는 핵심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사진은 지난 2024년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식'.

예정이며 신안·보성 만원주택은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곡성(53세대)·영암(50)·강진(50)·장흥(54)은 올 하반기 사업과 절차에 착수한다. 젊은 층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공공분양주택도 여수 죽림지구(2615세대)에 공급하고 구례에는 일자리융합형 주거모델로 지역활력타운을, 곡성에는 청년 정착을 위한 청년하우징타운(49세대)과 청년농촌보급자리(28세대) 사업을 진행한다.

또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를 확대하고 전세상생금융펀드 등을 연계,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비절감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전남개발공사 장종모 사장은 "임직원의 자부심이 통합 광역경제권의 성공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이라며 "22개 시·군 모두가 통합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통합 광역경제권의 잔란한 대 부흥을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는 여수 죽림지구 일대 청년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중이다. 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죽림지구 사업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4월 진도읍을 신혼부부·청년에게 월 1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축아파트를 공급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현장에서 열린 기공식 장면. <전남개발공사 제공>

“광주·전남, 단일 경제권으로... 균형발전 핵심 엔진 역할 하겠다”

장종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지방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려면 광주와 전남이 강력한 경제공동체를 실현해야 합니다. 초광역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종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담론 속에서 '전남의 미래 100년의 기틀을 쌓는 핵심 공기업'의 역할을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취임 후 경영 실적·청렴도·고객만족도 전국 1위인 '그랜드슬램'을 이룬 전남개발공사가 행정통합을 넘어 '호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청사진을 완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는 지역민의 기대감을 어떻게 반영할 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남이 가진 강력한 무기는 '무한한 공간'과 '에너지 주권'입니다. 통합 경제권의 실질적 '생산 기지'로, '에너지 저장소'로 핵심적 입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남해안권 초광역 메가시티'가 우리나라 제 2의 발전 축으로 도약하고 에너지와 바이오 등 전남 강점을 극대화한 자립 경제모델을 안착하는 데 공사의 역할을 찾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장 사장은 통합 이후 공기업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구

상도 세워놓았다. "그동안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일 잘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실적과 평가로 지역민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통합 초광역 경제권을 선도하는 대표 공공기관에 어울리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겁니다. 행정 통합으로 공사가 이익을 낼 수록 광역경제권의 삶이 더 풍족해진다는 점을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장 사장은 통합 과정에서 어디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상생형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2개 시·군의 특색을 살린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공을 쏟고 있다.

광주의 문화·교육 인프라를 공유하면서도 전남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특화된 일터를 동시에 갖춘 '자족형 초광역 명품 도시'가 장 사장이 그리는 도시 개발이다.

"대도시 외연을 넓히는 게 아니라 전남 각 거점 중소도시들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양 보춘지구와 화순 삼천지구는 상생 개발의 상징으로, 무안 오룡지구는 서남권 거점 도시로, 동부권 광양지구는 첨단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직주근접형 스마트 그린도시'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입니다. 어디에 살든 동일한 수준의 주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 사장은 에너지 대전환에 주력해온 만큼 행정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골몰하고 있다.

"전남의 바람과 햇빛은 광주 첨단 산업단지외 데이터센터를 돌릴 수 있는 핵심 연료입니다. 통합 이후에는 전남 생산지와 광주 소비처가 하나의 '에너지 대동맥'으로 연결됩니다. 지방공기업 최초로 160MW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 진출에 성공한 만큼 통합 광역 전력망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를 갖추게 됐습니다."

첨단 산업 유지를 위한 협력은 필수 과제다. 자칫 갈등과 반목이 커질 수 있어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사려 깊게 살펴야 한다.

"통합 경제 생태계를 설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행정통합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 투자 신호가 될 겁니다. 통합 이전에는 광주 인재와 전남 에너지를 따로 검토해야 했다면 이제 '단일 초광역 패키지'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을 통해 IT 기업들이 들어오고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 꿈을 펼치는 호남권 미래 생태계의 밑그림을 세밀하게 그려 나갈 겁니다."

장 사장은 또 RE100 첨단 산업단지의 경우 통합 경제권의 강력한 '미래 소재 거점'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해 통합 지자체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다.

"행정통합은 미래의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하는 '창조적 설계'입니다. 지방소멸의 파고를 통합이라는 연대로 극복



하고 AI와 에너지라는 날개를 달아 호남 위상을 세우겠습니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